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BIM

Pygmalion and Galatea, BIM

글. 고인룡_ Koh, Inlyong ·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 피그말리온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Ovidius)가 쓴 “변신이야기(Metamorphoses)”에는 유명한 그리스 신화 ‘피그말리온’ 이야기가 실려 있다. 당시 키프로스의 타락한 여자들이 싫어 평생 독신으로 살기로 작심했던 뛰어난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그리는’ 여성의 이미지를 상아로 조각한다. 재주 좋은 그가 정교하게 조각한 여인상은 마치 살아 있는 듯 완벽해서 세상의 어떤 여인보다 뛰어나게 아름다웠다. 피그말리온은 그만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과 사랑에 빠져 연인처럼 보듬고 옷과 선물을 바치기도 하였다. 원래 키프로스는 바다거품에서 태어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고향인지라 매년 이를 기리는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는 곳이다. 그 축제일을 맞아 피그말리온은 모든 정성을 기울여 미의 여신께 제물을 올리고는 ‘저 상아여인을 제 아내로 맞게 해 주소서’라며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에 감동한 미의 여신은 흠향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어 조각상을 진짜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유명한 이야기다. ‘토마스 벌빈치’는 그리스 로마신화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을 감동적인 문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1) Pygmalion and Galatea, Jean-Léon Gérôme, 1890

“피그말리온은 집으로 돌아오자 자기가 만든 처녀상 앞으로 다가가, 긴 의자 위로 몸을 구부리고 처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입술에 온기가 있는 것 같았다. 피그말리온은 다시 한 번 처녀상의 입술을 자기 입술로 누르고 손으로 처녀의 몸을 쓰다듬어 보았다. 상아가 더 없이 부드럽게 느껴졌다. 이번에는 손가락 끝으로 눌러 보았다. …… 그는 자기가 혹 무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사랑으로 뜨거워진 손길로 몇 번이고 이 그리워하던 처녀를 쓰다듬어 보았다. 처녀는 분명 살아있었다.”

『그리스와 로마신화』

토마스 벌핀치 저, 이윤기 역,
1996. 대원사. p116-

그리고 19세기 화가 ‘장 레온 제롬’은 피그말리온의 키스로 ‘갈라테이아’가 육화하는 순간을 따뜻한 피가 흐르는 관능적인 모습이지만 하체는 여전히 상아인체로 표현하여 그 찰나의 환상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2. 갈라테이아의 변신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어떤 것을 내 기술로 제작하고,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실체가 된다는 것은 분명 고대 그리스 조각가인 피그말리온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모든 이(건축사들을 포함한 예술가)들의 영원한 갈망일 것이다. 게다가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이 독립된 실체로 사회화하는 과정을 읽어 낼 수 있어 건축사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약간 비약적이긴 하지만 피그말리온의 이야기를 따라 갈라테이아 창작의 과정(process)을 짚어보자.

피그말리온은 그가 구상할 수 있는 최고의 ‘원형’ 여성상(타락한 풍속에 물들지 않은 본래의 여성상)을 개념(concept)으로 삼고 적절한 재료와 최고의 기술로 아름다운 형상(form)으로 만들어 내었다. 그는 이어서 이 조각상을 ‘갈라테이아(우윳빛 여인)’라고 명명하여 호명함으로써 가상물(model)이 아닌 독립적인 개체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제 그는 하나의 존재로 조각상 갈라테이아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보살피고, 결국은 (신의 은총으로) 살아 숨 쉬는 완전한 인간으로 ‘변태(Metamorphoses, 탈바꿈)된 독립적 존재로 그토록 원한 바대로 그와 ‘같이 살았다’. 이 과정을 다시 개념과 형태라는 건축의 원리구조로 정리하면 ‘공작물’이었던 갈라테이아는 피그말리온의 이상화된 ‘개념모형’(concept model)이 실제적인 ‘형상 모형’(form model)으로 구축된 것이다. 그런데 ‘갈라테이아’로 명명되어 짐으로써 독자적인 사물(독립개체, meta model)화 과정을 거쳐, 결국은 생명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being)로 바뀌어가는 ‘모형의 질적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 이 진행과정은 우리 건축사들의 작업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건축사들의 작업(모든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은 개념을 형상을 가진 실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 다소 거칠게 말할 수 있겠다.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구상된 개념의 다양한 ‘단계별 실현 모형’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의 ‘질적 변화’를 거친 실체가 건축물이며, 탄생된 건축물은 사회화되어 그것을 만든 건축사와는 ‘독립적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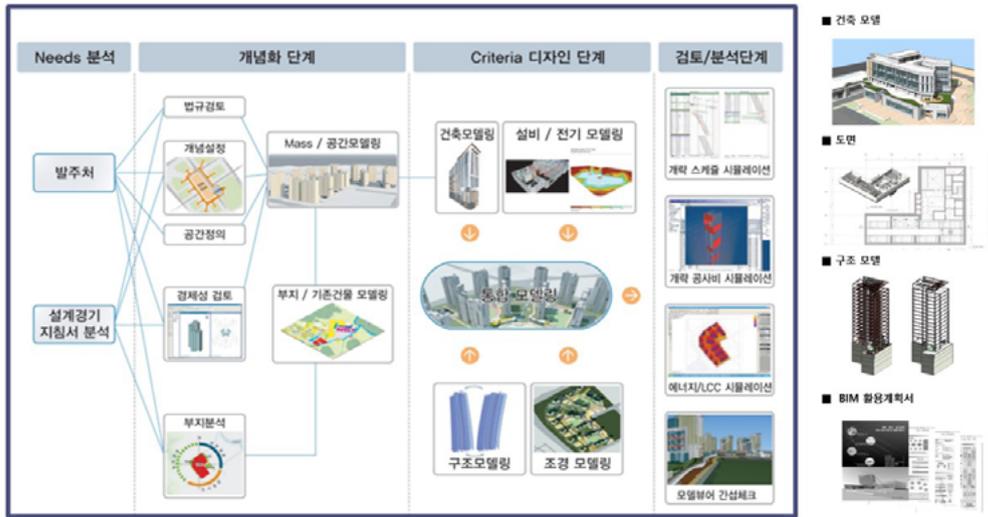


그림 2) 건축사의 설계단계별 개념구축모형과 표현모형 형식들의 예

그러므로 건축사에게 있어서 개념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가능한 형태로 보여주는 모형은 결국 생각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며 동시에 표현방법이다. 건축 모형이나 도면 그리고 다양한 도서들은 건축사들의 개념을 실현해 가는 일종의 개념구축모형화 과정(concept formation modelling process)이다. 이것들은 설계안을 일정한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바탕이 되며 검토와 실현의 단계별 가능성을 실험하는 설계과정 자체이기도 하다.

3. BIM, 건축사의 익숙한 생각도구

앞서 그리스 신화를 통해 굳이 보이려고 했던 것은 결국, 건축 작업이란 개념의 구축과 이를 가시적 형상으로 만들어 내는 모형의 단계들을 거쳐 실체화됨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이었다. 모형들은 개념 단계에서부터 기본설계단계, 설계발전단계 그리고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에 이르는 설계의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질적 변화’를 거쳐 심화, 구체화, 현실화시켜 가기 위한 매개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모형은 추상적인 건축사의 고유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온 오래되고 익숙한 도구다. 비록 덜 익숙한 디지털형식이지만 하지만 말 그대로 BIM은 ‘건축 정보 모형’이다. (단지 건축사의 손을 대신하는 것이 CAD이었다면) BIM은 건축물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모형화 함으로써 건축사의 개념과 의도 및 개성을 구축해 주는 ‘생각도구’이며 ‘모형 생성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사들은 BIM을 이용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설계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익숙한 나름의 방법으로 BIM이라는 도구를 이해하고 사용하면 될 것이다.

건축사가 지니는 전문성은 건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며 개념화된 개인적인 가치관과 해석이 설계를 통해 드러난다. 그러므로 개념수립은 곧 관련 정보의 체계적 구축이며 건축과정은 이 개념정보들의 수립과 전달과정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건축정보의 입체적 구축 모형을 만드는 것이 BIM이라는 도구의 역할이다. 다만 디지털도구이며 정보도구라는 형식상 특성에 주의를 할(익숙해 질) 필요는 있겠다. 설계과정을 건축사에게 주어진 과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개념정보로 구축하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 정보들을 목적과 개념에 맞게 구축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다. BIM은 이 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익숙한 건축적 시각모형으로 바꾸어주고, 건축사의 개념을 필요한 수준으로 모형화하는 작업환경이지 그 결과물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작업 결과물의 형식만을 가지고 BIM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벗어나야 BIM이 진정한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건축사의 개념으로부터 만들어진 ‘건축정보모형’을 형상화하고 현실세계에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정보를 단계별로 추가하여 정교한 정보 모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BIM사용법이다.

피그말리온의 기술로 만든 정교한 상아여인상이 호명을 통해 정의되고 신에 의해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결국 ‘갈라테아’라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였듯, 건축사의 손을 거친 건축정보들이 개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정의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구축된 “단계별 정보 수준”(LOI: Level of Information) BIM모형들이 건축물의 질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건축에서 BIM의 ‘피그말리온 효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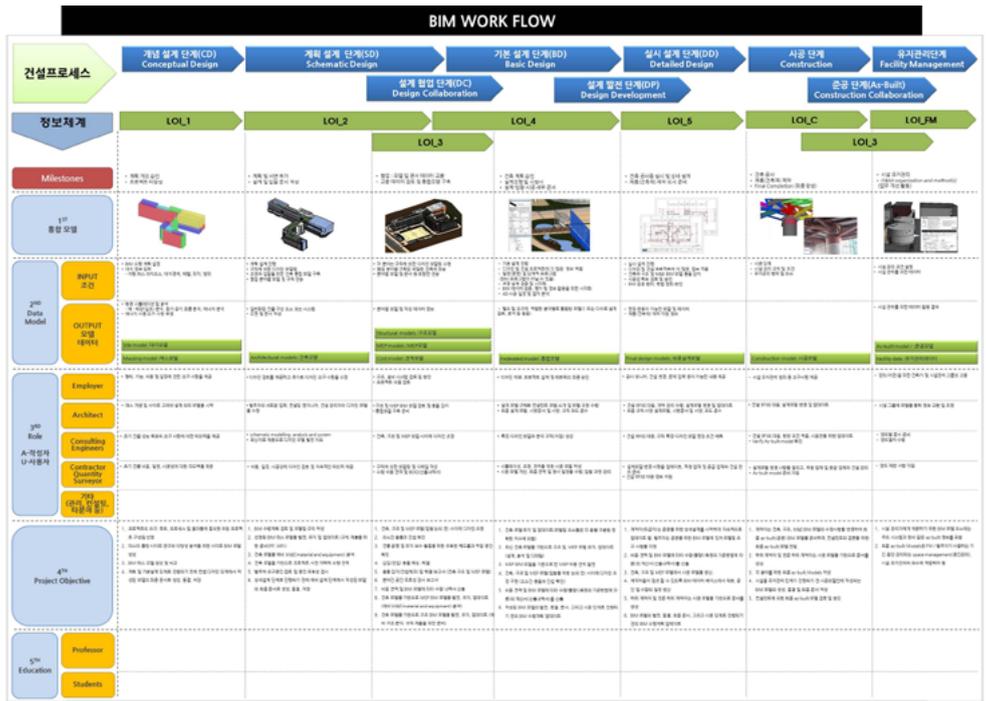


그림 3) 건축정보를 구축하는 BIM 작업과정과 단계별 요구수준(LOI)